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 관계: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arental Efficacy on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According to Family Type and School Level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2,497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t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조손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가 되었다. 셋째,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로 모두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초등학교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중/고등학교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 및 자녀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arental efficacy on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depending on family type and school level. Using data from 2,497 families that participated in the 2018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t-tes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wo-parent families reported higher levels of educational involvement than single-parent families and custodial grandparent families. Also, two-parent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showed higher educational involvement than two-parent families raising children attending middle schools. Second,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on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ird,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family type, with two-parent families having greater involvement than single-parent families and custodial grandparent families. Fourth, multiple group analysis repo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school achievement as well as parental efficacy and school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school level.

Keywords :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Parental Efficacy, School Life Satisfaction, School Achievement, Family Type, School Level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February 2, 2021

Accepted May 7, 2021

Revised February 22,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는 자녀 교육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행동 적응[1], 자기주도적 학습[2], 학업성취[3]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그동안 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주로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부모/조손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보다 더 큰 양육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4, 5], 한부모/조손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간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주 양육자 및 자녀의 특성에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부모 특성, 자녀의 발달 및 적응 과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부모의 교육 참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유형,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에서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참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다차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ill과 동료들(2004)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 및 미래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및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6]. Hill과 Tyson(2009)에 따르면 부모 참여는 학교 참여, 가정 참여, 학업적 사회화로 구분될 수 있다[7].

부모 참여 정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가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더 많은 부모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8]. 양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학부모 학교 참여는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및 저성취 자녀에게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가족 유형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학교급에 따

라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 및 학교 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 관여 수준 및 학교 참여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12].

부모 참여는 정서적, 행동적 학업참여를 매개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8]. 그리고 부모 학교 참여는 학교 소속감을 매개로 학업적 유능감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특히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 참여가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지지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함으로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부모 참여는 자녀의 학업적, 내재적 가치를 매개로 학업적 흥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 참여는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적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15]. 메타분석 결과 또한 부모참여와 학업성취 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16, 17].

부모 참여는 학업성취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정서 기능(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18] 및 웰빙[19]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 참여의 증가는 문제행동의 감소와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청소년 대상 연구에 따르면 부모 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21], 자녀의 학교 관여를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22].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효능감[23]은 긍정적 양육행동[24], 부모-자녀 상호작용[25], 학습케어[26], 학교적응[27]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또한, 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8]. 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중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의 학교 참여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3)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2,497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학부모의 교육 참여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부모 교육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학교운영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을 관심있게 보고 가능한 경우 참여한다.’ 등의 학교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3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93$ 이다.

2.2.2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주 양육자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59$ 이다.

2.2.3 학교생활 만족도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Likert 11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⑪ 매우 만

족한다)의 1문항으로 확인하고 있다. 문항은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30].

2.2.4 학업성취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점수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지난학기(2018년 2학기)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1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30],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30$ 이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에 기초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으며,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둘째,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으며, 형태, 측정, 구조 동일성 검증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2.0,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31].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 1,349명(54.0%), 여학생 1,148명(46.0%)이며, 연령은 9~11세 769명(30.8%), 12~17세 1,728명(69.2%)이다. 지역은 대도시 1,120명(44.9%), 중소도시 1,164명(46.6%), 농어촌 213명(8.5%)이며, 가족 유형은 양부모 1,835명(73.5%), 한부모/조손 662명(26.5%)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1,349	54.0
	Female	1,148	46.0
Child's age	9~11	769	30.8
	12~17	1,728	69.2
Region	Metropolitan city	1,120	44.9
	Small and medium city	1,164	46.6
	Rural area	213	8.5
Family type	Two-parent	1,835	73.5
	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662	26.5

3.2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 차이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Table 2 참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학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comparison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by family typ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N</i>	<i>M</i>	<i>SD</i>	<i>t</i>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Two-parent	1,835	3.25	.72	16.00***
	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662	2.67	.83	
	Elementary school students	952	3.28	.72	9.48***
	Middle/high school student	1,545	2.98	.81	

*** *p*<.001

3.3 기술통계 및 측정모형 검증

3개 잠재변인의 12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확보했는지 확인한 결과(Table 3 참고), 왜도 .7~.27, 첨도 -.64~1.56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2].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참여, 부모효능감, 학업성취의 측정변인 간 정적 패턴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잠재변인(학교참여, 부모효능감, 학업성취)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Table 4 참고). 분석 결과, $\chi^2(df=41, N=2,497)=556.697, p<.001, TLI=.961, CFI=.971, RMSEA=.071(90\%신뢰구간=.066\sim.076), SRMR=.035$ 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AVE 값이 .5 이상, CR 값이 .7 이상,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AVE 값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33].

3.4 구조모형 검증

Fig. 1과 같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간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적합도를

Table 3.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2,4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744**	1										
3	.691**	.742**	1									
4	.375**	.295**	.318**	1								
5	.358**	.288**	.303**	.626**	1							
6	.482**	.395**	.383**	.522**	.541**	1						
7	.299**	.240**	.183**	.238**	.231**	.280**	1					
8	.278**	.226**	.198**	.234**	.254**	.251**	.464**	1				
9	.295**	.277**	.244**	.218**	.243**	.238**	.426**	.689**	1			
10	.317**	.295**	.273**	.229**	.258**	.271**	.449**	.696**	.741**	1		
11	.289**	.248**	.205**	.234**	.251**	.265**	.487**	.771**	.695**	.718**	1	
12	.304**	.279**	.225**	.229**	.251**	.259**	.465**	.720**	.777**	.718**	.787**	1
<i>M</i>	3.30	2.92	2.96	3.27	3.31	3.41	7.04	7.04	6.61	6.66	6.90	6.78
<i>SD</i>	.78	.93	.96	.55	.57	.61	1.31	1.61	1.78	1.75	1.54	1.58
<i>Sk</i>	-.43	-.24	-.28	.27	.14	-.29	-.70	-.64	-.49	-.48	-.63	-.56
<i>Ku</i>	-.05	-.62	-.64	.28	.09	.15	1.56	.34	.11	.13	.6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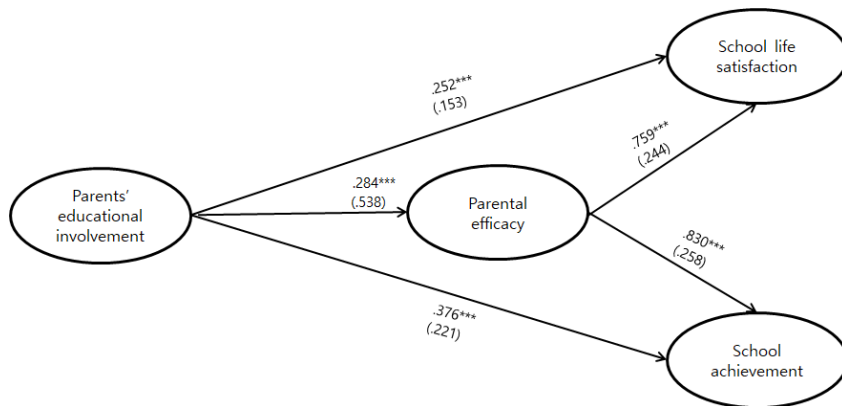
* *p*<.05, ** *p*<.01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1), 2: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2), 3: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3), 4: parental efficacy(1), 5: parental efficacy(2), 6: parental efficacy(3), 7: school life satisfaction, 8: school achievement: korean , 9: school achievement: math, 10: school achievement: english, 11: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12: school achievement: science

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2,497)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β	AVE	CR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1	1.00			.83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2	1.03	.02	49.94***	.88	.77	.9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3	.84	.02	48.42***	.85		
Parental efficacy	Parental efficacy 1	1.00			.77		
	Parental efficacy 2	1.06	.03	33.15***	.78	.80	.92
	Parental efficacy 3	1.04	.03	31.48***	.71		
School achievement	Korean	1.00			.84		
	Math	1.12	.02	52.19***	.85		
	English	1.08	.02	50.93***	.83	.50	.83
	Sociology	1.00	.02	54.95***	.87		
	Science	1.04	.02	56.41***	.89		

*** p<.0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확인한 결과 $\chi^2(df=49, N=2,497)=606.423, p<.001, TLI=.960, CFI=.970, RMSEA=.068(90\% \text{ 신뢰구간} =.063\sim.072), SRMR=.034$ 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부모효능감($\beta=.538$) 및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beta=.153$), 학업성취($\beta=.22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beta=.244$), 학업성취($\beta=.25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5 참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b	Bias-corrected 95% CI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216***	.162~.276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236***	.183~.297

*** p<.001

3.5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가구 유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Table 6 참고). 먼저 형태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형태동일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9, N=1,835)=470.522, p<.001, TLI=.956, CFI=.968, RMSEA=.068, SRMR=.037$, 한부모/조손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9, N=662)=221.482, p<.001, TLI=.951, CFI=.963, RMSEA=.073, SRMR=.039$ 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chi^2(df=98, N=2,497)=692.042, p<.001, TLI=.955, CFI=.966, RMSEA=.049, SRMR=.037$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모형과 양부모 집단과 한부모/조손 집단 간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을 진행하였으며, $[\Delta\chi^2(8) = 6.572(p>.05)]$ 로 나타나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692.042 ***	98	.955	.966	.037	.049(.046~.053)
Full metric invariance	698.614 ***	106	.958	.967	.037	.047(.044~.051)
Structural invariance	713.316 ***	111	.960	.966	.038	.047(.043~.050)

*** p<.001

셋째, 구조동일성이 가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양부모 집단과 한부모/조손 집단 간 경로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진행

Table 7.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Two-parent		Single-parent/ custodial grandparents		$\Delta\chi^2$	Δdf
	b	β	b	β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	.28***	.486	.273***	.528	.062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life satisfaction	.35***	.204	-.009	-.005	11.749**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achievement	.416***	.228	.187***	.108	4.957*	1
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692***	.233	.873***	.245	.743	1
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752***	.238	.899***	.269	.512	1
all strains					14.712***	5

* p<.05, ** p<.01, *** p<.001

하였으며, $[\Delta\chi^2(5) = 14.712(p<.001)]$ 로 나타나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고).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가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급에 따른 경로계수 크기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8 참고). 먼저, 형태동일성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9, N=952)=236.980, p<.001, TLI=.962, CFI=.972, RMSEA=.064, SRMR=.038$, 중/고등학교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9, N=1,545)=463.286, p<.001, TLI=.952, CFI=.965, RMSEA=.074, SRMR=.034$ 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chi^2(df=24, N=2,497)=700.254, p<.001, TLI=.956, CFI=.967, RMSEA=.050, SRMR=.037$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Delta\chi^2(8) = 10.721(p>.05)]$. 셋째,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5) = 17.654(p<.01)]$ (Table 9 참고).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700.254 ***	98	.956	.967	.038	.050(.046~.053)
Full metric invariance	710.975 ***	106	.959	.967	.039	.048(.045~.051)
Structural invariance	728.629 ***	111	.960	.966	.046	.047(.044~.051)

*** p<.001

Table 9.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high school student		$\Delta\chi^2$	Δdf
	b	β	b	β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Parental efficacy	.3***	.54	.277***	.529	.832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life satisfaction	.271***	.156	.186	.117	.913	1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School achievement	.517***	.295	.237***	.145	9.099**	1
Parental efficacy→School life satisfaction	.813***	.26	.731***	.24	.228	1
Parental efficacy→School achievement	.469**	.148	1.013***	.324	9.200**	1
all strains					17.654**	5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구조적 관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조손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부모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9, 11, 12].

둘째, 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가 되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참여와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업성취, 긍정적 정서 기능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18, 28].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을 학교운영회 임원, 대의원 활동 및 참여, 학교의 각종행사 참여, 학예발표회, 전시회 등의 교내 활동에 참관, 비공식적 어머니의 모임 참여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은 자녀의 학교 소속감, 학업적 내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 동기, 학업적 유능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15]. 또한 부모 참여는 자녀의 긍정적 정서 기능[18] 및 웰빙[19]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에 더 많은 지원 및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22 재인용]. 이와 같은 부모의 교육 관련 지원 및 관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촉발하고, 학업적, 사회적 자기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부모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학교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는 학교 참여를 통해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측면의 관계적 자원을 얻을 수 있다[28].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34, 35]. 그리고 증가된 부모효능감은 긍정적 양육행동[24]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25]을 촉진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통해 효능감 향상을 촉진하는 성취 경험, 사회적 모델링, 언어적 설득[36]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집단 분석 결과, 가족 유형에 따라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모두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 참여를 통해 한부모/조손 가정에 필요한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가 학교 참여를 통해 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결 및 양육-교육 관련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부모효능감 향상을 이끌 필요가 있다.

넷째, 다집단 분석 결과, 학교급에 따라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초등학생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는 중/고등학생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직접적 학업 지원 및 관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부모효능감에 기초한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단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 참여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중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부모 참여를 가정 참여와 학교 참여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없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가정 참여와 학교 참여가 학부모 양육 특성 및 자녀 적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얼마나 지지적으로 여기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에 따라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는 양부모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보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yers와 Myers(2015)는 1~12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유형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9]. 정제영과 정예화(2015)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김소영과 진미정(2015) 또한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

의 교육 참여 수준이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급을 고려하여 교육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한부모/조손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부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부모-학교 소통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세리 외(2016)[2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 학부모가 교육 참여를 통해 부모효능감을 높일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 가정보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한부모/조손 가정의 학부모가 교육 참여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맞춤형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모 및 자녀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 유형 및 학교급의 특징을 고려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증진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References

- [1] M. Badri, A. Al Qubaisi, A. Al Rashedi, G. Ya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ural adjustment to KG-1 schoo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8, 3, 2014. DOI: <https://doi.org/10.1007/s40723-014-0003-6>
- [2] M. Xu, S. N. Kushner Benson, R. Mudrey-Camino, R. P. Stein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self-regulated learning, and reading achievement of fifth graders: A path analysis using the ECLS-K databas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3, No.2,

- pp.237-269, 2010.
DOI: <https://doi.org/10.1007/s11218-009-9104-4>
- [3] A. D. Benner, A. E. Boyle, S. Sadler,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s' educational success: The roles of prior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5, No.6, pp.1053-1064,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431-4>
- [4] S. Y. Bang, S. H. Choi, S. H. Lee, H. J. Hwang, "Impact of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par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up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 No.5, pp.157-179, 2013.
DOI: <https://doi.org/10.14698/JKCCCE.2013.9.5.157>
- [5] S. O. Jang, E. J. Kwon, "Problems and interventions for the family living in the care of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9, No.1, pp.351-373, 2010.
- [6] N. E. Hill, D. R. Castellino, J. E. Lansford, P. Nowlin, K. A. Dodge, J. E. Bates, G. S. Pettit, "Parent academic involvement as related to school behavior, achievement, and aspirations: Demographic variations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75, No.5, pp.1491-1509,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753.x>
- [7] N. E. Hill, D. F. Tyson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5, No.3, pp.740-763,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5362>
- [8] M. T. Wang, S. Sheikh-Khalil, "Does parental involvement matter for student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Vol.85, No.2, pp.610-625, 2014.
DOI: <https://doi.org/10.1111/cdev.12153>
- [9] S. M. Myers, C. B. Myers, "Family structure and school-based parental involvement: A family resour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36, No.1, pp.114-131,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34-014-9409-0>
- [10] W. H. Jeynes,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family structur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Marriage & Family Review*, Vol.37, No.3, pp.99-116, 2005.
DOI: https://doi.org/10.1300/J002v37n03_06
- [11] J. Y. Chung, Y. H. J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levels on the student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7, pp.73-93, 2015.
- [12] S. Y. Kim, M. J. Chin,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s' school-based involvement: Do they differ among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amily and Culture*, Vol.27, No.2, pp.27-60, 2015.
DOI: <https://doi.org/10.21478/family.27.2.201506.002>
- [13] G. P. Kuperminc, A. J. Darnell, A. Alvarez-Jimenez, "Parent involvement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Teacher expectations and school belonging as mediators", *Journal of Adolescence*, Vol.31, No.4, pp.469-483, 2008.
- [14] C. S. S. Cheung, E. M. Pomerantz, "Why does parents' involvement enhance children's achievement? The role of parent-oriented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04, No.3, pp.820-832, 2012.
DOI: <https://doi.org/10.1037/a0027183>
- [15] Y. Dong, H. Wang, L. Zhu, C. Li, Y. Fang, "How parental involvement influences adolescents' academic emotions from control-value theor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9, pp.282-291,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9-01586-3>
- [16] W. H. Jeynes,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to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Vol.40, No.3, pp.237-269, 2005.
DOI: <https://doi.org/10.1177/0042085905274540>
- [17] X. Fan, M. Chen,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3, No.1, pp.1-22, 2001.
DOI: <https://doi.org/10.1023/A:1009048817385>
- [18] C. S. S. Cheung, E. M. Pomerantz,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mplications for children's academic and 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82, No.3, pp.932-950, 2011.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582.x>
- [19] E. Flouri, A. Buchanan,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3, No.3, pp.399-406, 2003.
DOI: <https://doi.org/10.1093/bjsw/33.3.399>
- [20] N. E. El Nokali, H. J. Bachman, E. Votruba-Drzal, "Parent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Vol.81, No.3, pp.988-1005,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0.01447.x>
- [21] S. T. Yap, R. Baharud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involvement, self-efficacy belief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ultiple mediator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26, pp.257-278, 2016.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5-0882-0>
- [22] R. S. M. Wong, F. K. W. Ho, W. H. S. Wong, K. T. S. Tung, C. B. Chow, N. Rao, K. L. Chan, P. Ip, "Parental involvement in primary school education: Its relationship with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psychosocial competence through engaging children with 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7, pp.1544-1555, 2018.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7-1011-2>

- [23] T. L. Jones, R. J. Prinz,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5, No.3, pp.341-363, 2005.
DOI: <https://doi.org/10.1016/j.cpr.2004.12.004>
- [24] C. L. Costigan, C. M. Koryzma,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8, No.2, pp.183-196,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1696>
- [25] S. Y. Hong, "The influence of parental child care activities on parent-child inter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4, pp.55-78, 2020.
- [26] O. S. Cho, H. S. Bang,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4, pp.173-180,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173>
- [27] J. H. Lee, O. I. Park, J. H. Kim, J. S. Park,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4, No.1, pp.13-25, 2013.
- [28] S. R. Kim, S. H. Lee, Y. J. Koo, K.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4, pp.139-154,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4.139>
- [29] Y. M. Lim, "An analysis of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s school involve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t middle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7, No.2, pp.1-27, 2020.
- [30] http://www.mohw.go.kr/react/ib/sib030301vw.jsp?PA_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0493&page=1
- [31]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 of child's and parent's self-esteem and child's career maturity: Focused on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 pp.236-24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36>
- [3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1.
- [33] H. S. Choi, "Predictors of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465-47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465>
- [34] Y. J.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ingle mothers, parental self-efficacy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6, pp.302-310,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6.302>
- [35] S. J. Shin, M. J. Chung,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9, No.1, pp.27-42, 1998.
- [36] A. Bandura, "O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self-efficacy revisited", *Journal of Management*, Vol.38, No.1, pp.9-44, 2012.
DOI: <https://doi.org/10.1177/0149206311410606>
- [37] W. M. Barnard,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educational attain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26, No.1, pp.39-62, 2004.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3.11.002>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